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자립도시'

군산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서 2년 연속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 3만1980개 일자리 창출·기업 유치·상권 활성화·청년정책 수립 등 전국 인정 받아

8일 서울 열다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군산시가 2년 연속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목표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일자리 관련 최고 권위를 가진 행사이기도 하다.

2020년 이래 네 번째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군산시는 작년 3만 1천9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공시한 목표 대비 130%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2023년 하반기 기준 고용률(15~64세) 64%를 기록하며 고용위 기지역으로 지정된 2017년 대비 5.5%p라는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취업자 수(13만 6천명), 청년고용률(33.8%), 여성고용률(53.8%) 등 각종 일자리 정량 지표에서도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군산시는 민선8기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자립도시' 비전에 따른 4대 전략별 일자리 대책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기반 마련 △청년일



지리 정책 육성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일자리 지원 △생활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에는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를 운영하며 조선업과 이차전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역량 강화교육, 일자리 매칭데이 등을 통해 1천152명을 취업연계시켜 구인난을 해결하였다.

그밖에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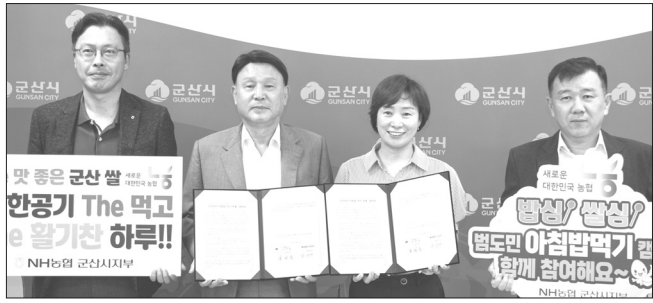
워크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분야 인력 수요 선제 대응에 앞장섰다.

군산시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 청년참여형 협력 거버넌스 기반 구축으로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일상돌봄서비스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여 차별 없이 함께 가는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했다.

더욱이 '공부의 명수', '동네문화 카페' 등 교육·문화와 상권이 공존하는 군산형 상생 모델까지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산시는 내년도 청년 취·창업지원, 신산업 및 시민밀착형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장기적인 자립기반 마련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김임준 시장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산시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과 K-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에 발맞춰 전략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진정한 일자리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 체결

군산시·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군산쌀 소비촉진 홍보활동

8일 군산시와 농협중앙회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시민들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군산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쌀값 하락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 쌀의 우수성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각종 행사 기념품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서,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직원 및 민원인에게 심리향으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홍보하였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과수화상병 차단 농가 예방수칙 의무 강화

익산시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농가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의무교육 미이수 20%예방수칙 미준수 10%감액이 적용되며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1월부터 적용된다.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의무교육 미이수 20%예방수칙 미준수 10%감액이 적용되며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1월부터 적용된다.

익산시는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063-859-498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진행

익산시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돕기 위해 위원 역량강화에 나섰다.

시는 8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환영을, 용인면, 중앙동, 신동, 삼성동 등 5개 읍면동에서 1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됐다.

정현을 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힘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금지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위원 공개모집과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기가 출범했다.

주민자치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 발굴, 지역행사, 주민총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첫삽

8일 기공식 진행·2025년 12월 준공 목표... 52억 투입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233㎡ 규모로 조성

익산시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핵심 공간이 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이 첫 삽을 떴다.

시는 8일 어양동 662-4 일원에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한병도 국회의원, 도·시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소속 어르신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운 라인댄스와 기공체조를 선보였으며, 시삽예술탄 풍물단의 공연으로 행사의 흥을 돋웠다.

남중동에 위치한 기존 노인회관은 1984년 준공 이후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왔지만, 시설이 노



후하고 협소해 익산시는 어르신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립을 추진했다.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은 국·도비 21억 원, 시비 31억 원 등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인구역이 넓고 접근성이 용이한 어양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23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4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노인대학강실, 지회강실 등이 들어서고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우수디자인 확보와 실용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했고, 설계용역 기간 공공건축 자문가와 노인회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이용자들이 교령임을 감안해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이동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저소득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혈관 및 복막투석비·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수술비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저소득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신장 투석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120% 이하로 신장 심한장애인인 가능하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된다.

군산시는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 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투석 혈관 수술비는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 장애인은 신장질환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어르신 체력증진 교실 운영

60~80세 시민 20명 모집·8월 12일~9월 4일 신청

익산시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 보건소는 60세 이상 80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3기 어르신 체력증진 교실 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

3기 어르신 체력증진 교실은 9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보건소 4층 신체

활동실에서 주 5회 운영된다. 기초 체력을 측정하고 전문 운동 처방사와 함께 유연성, 평형성, 근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전화 상담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063-859-4913, 491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